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가르침과 설교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35장 '가르침과 설교', 391–398쪽 무렵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짚습니다.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글보다 말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말로 전해지는 말씀을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도 시대가 끝난 뒤에는 영감된 선포가 더 없습니다. 그래도 설교와 가르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프레임은 설교와 가르침이 서로 다른 두 활동이 아니라 겹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약이 예배 속 말씀 사역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설교'가 아니라 '가르침'(고린도전서 14:26)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다음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바르게 읽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참되게 전하는 만큼, 그 말은 성경만큼 참되고 권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은 '설교의 중심성'이라는 전통적 강조에 다섯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예화와 적용까지 포함해,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적 말씀을 전하시는 효과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 절별 정리

📜 1. 말로 오는 말씀, 사도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어서가 아니라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문화 가운데 글을 모르는 사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순서로 봐도 말이 글보다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길을 다룰 때

없고 틀림이 없었습니다(15장). 성경은 사도 이후에 그런 권위를 가진 말이 다시 나오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경이 완성되었으니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로 충분합니다(22장, 32장). 그렇다고 말씀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교회의 감독자는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 역사상 복음은 주로 '귀'로 전해졌다
2. 말이 글보다 먼저였다(예수님·사도)
3. 사도의 영감된 선포는 이제 없다
4. 정경 완성 후 성경이 말씀의 충분한 출처
5. 그래도 설교·가르침은 계속 명령된다

> **디모데후서 4:2**
> 사도가 아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함. 설교는 사도 이후에도 계속된다
>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 **디모데전서 3:2**
> 감독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함. 가르침은 교회의 지속적인 직무다
>
>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 2. 설교와 가르침은 같은 일인가

한때 신약의 '설교'(케리그마 계열)와 '가르침'(디다케 계열)이 어떻게 다른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신약학자 다드(C. H. Dodd)는 1936년 책에서 이 둘이 주제가 뚜렷이 다른 두 소통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임은 이 결론이 지나치다고 봅니다. 신약 여러 곳에서 두 말이 같은 활동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뉘앙스는 조금 다르고, 서로를 채워 줍니다. '설교'는 큰 무리 앞에서 하는

설교는 가르침의 한 종류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약에서 '설교하다'는 주로 무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셨지만, 이 말은 대부분 사도들, 특히 바울의 선포에 쓰입니다. 사도들은 회당의 유대인, 사마리아인, 도시의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1. 다드: 설교와 가르침은 별개의 두 형태
2. 프레임: 너무 극단적, 둘은 겹친다
3. 설교 = 공식적·극적인 공개 선포
4. 가르침 = 더 넓은 소통, 설교를 포함
5. 신약의 '설교'는 주로 바깥을 향한 복음 선포

마태복음 4:23, 9:35, 11:1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치다'와 '전파하다'가 나란히 같은 활동을 가리킴

마태복음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11: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사도행전 5:42, 15:35, 28:31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두 말이 함께 쓰임. 둘은 겹친다

사도행전 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5: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로마서 2:21

'가르치는 자'와 '전파하는 자'가 같은 활동을 가리키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골로새서 1:28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가르침”으로 묶어 표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디모데전서 2:7

바울이 자신을 '전파하는 자'이자 '스승'으로 소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후서 4:2

“말씀을 전파하라”와 “가르침으로”가 한 명령 안에 함께 있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행전 9:20

회당의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선포함. 설교의 무대 1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8:5

사마리아인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 설교의 무대 2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14:1-7

>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

📜 3. 가르침과 직분: 특별직분과 일반직분

가르침도 설교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감독자' 직분과 특히 연결되어 있어 교회 안 상황에 잘 맞습니다. 감독자에게는 가르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신자가 교사입니다. 개혁신학은 이것을 둘로 나눕니다. 교회의 공적 가르침은 '특별직분'에 속합니다. 모든 신자가 서로 가르치는 일은 '일반직분', 곧 모든 신자가 가진 제사장 직분의 일부입니다. 특별직분의 가르침에는 인격과 능력에서 특별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프레임은 디모데전서 2:12를 자신의 해석에 따라 이 특별직분의 가르침은 남자에게만 맡겨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도 일반직분의 가르침에는 참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를 가르친 일, 나이 든 여성이 젊은 여성을 가르치도록 한 바울의 지시가 그 예입니다.

1. 가르침은 감독자 직분과 특히 연결
2. 그래도 모든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교사
3. 공적 가르침 = 특별직분(은사 필요)
4. 서로 가르침 = 일반직분(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5. 특별직분은 남자, 일반직분은 여성도 참여

>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3:16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모든 신자가 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히브리서 5:12

신자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요한일서 2:27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신자. 가르침이 소수에게만 묶이지 않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디모데전서 3:1-7

감독자의 자격. 특별직분은 인격과 능력의 은사를 요구한다

[1]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

디모데전서 2:12

프레임의 해석: 특별직분의 공적 가르침은 남자에게 제한된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사도행전 18:2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침. 여성의 일반직분 가르침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디도서 2:3-5

나이 든 여성이 젊은 여성을 가르침. 여성의 가르침 사역

[3]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 4. 예배 속 말씀은 '가르침'이다

우리는 '설교는 주일 아침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기독교 예배의 어떤 요소도 '설교하다'(케루소)라는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프레임은 이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두 말의 경계가 흐릿하니, 예배 속 가르침을 '설교'라고 불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개혁신학의 '설교' 개념은 대체로 승천 이후 사도들의 선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선포 방식, 구속사(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흐름) 강조,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가까운 구절은 고린도전서 14:26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은 '디다케', 곧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어야 하고, 예배의 다른 모든 부분처럼 회중을 세워야 한다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나 시장에서 불신자 앞에 설 때의 자세를 예배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보통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예배에 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 모임의 주된 목표는 회심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 신약은 예배 요소를 '설교'라 부르지 않음
2. 개혁신학의 설교 개념은 사도의 선포에서 옴
3. 그 색채를 예배 가르침에 다 씌우면 곤란
4. 예배 속 말씀 = 고린도전서 14:26의 '가르침'
5. 예배의 주목표는 회심이 아니라 교화

> **고린도전서 14:26**
>
> 예배 모임의 “가르치는 말씀”(디다케). 예배 속 말씀 사역의 가장 가까운 근거
>
>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고린도전서 14:23-25**
>
> 불신자도 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도 예배의 주목표는 교화다
>
>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프레임은 우리가 익숙한 전제를 잠시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14:26을 읽어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오늘날 많은 교회보다 예배 속 가르침을 덜 제한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꼭 한 사람만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회중의 여러 사람이 예배 순서를 내놓는 장면이니, 때로 여러 사람이 가르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독자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독자는 오류나 잘 모르는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가르칠 능력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이런 가르침에는 성별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감독자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말이라면 여성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셋째, 사도행전 속 사도들의 설교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회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자유는 창의성을 북돋웁니다. 성경 원리에 맞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면 여러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 연령별 설교, 실물 교육, 음악과 드라마, 시청각 자료, 개인 간증, 질문 받기 등입니다.

1.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일 필요는 없다
2. 감독자만 가르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사도행전식 설교를 복제할 필요도 없다
4. 유일한 조건은 '회중을 세우는가'
5. 성경에 맞는 창의적 방식은 열려 있다

> **고린도전서 14:26**
> 형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를 기준으로 삼음. 가르침의 자유와 그 한계
>
>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6.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프레임은 이 장의 진짜 목적이 교회 설교법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설교·가르침과

하인리히 불링거 작성) 1장의 소제목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니다. 그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자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다른 말씀을 지어내거나 하늘에서 새로 내려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어도 말씀 자체는 참되고 선합니다. 프레임은 이렇게 읽습니다. 신앙고백서 전체가 성경을 다루는 맥락이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행위가 아니라 설교자가 풀어 전하는 성경입니다. 요점은 새 계시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옛 계시, 곧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성자들도 설교자가 틀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설교자가 성경을 참되게 전하는 만큼, 그 말은 성경 자체만큼 참되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본과 번역을 쓰시듯 설교도 쓰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과 바울만큼 확실하게 성경 원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자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로 주일에 들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1. 이 장의 목적: 설교와 하나님 말씀의 관계
2. 신앙고백서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3. 요점: 새 계시 말고 성경에서 말씀을 찾으라
4. 참되게 전하는 만큼 성경과 같은 권위
5. '설교자도 틀린다'는 불순종의 핑계가 안 된다

> —
>
> 이 단락에서 저자는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음. 근거는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서 본문과 앞 장들(15·22·32장, 사본·번역 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 7. '설교의 중심성'에 대한 다섯 의문

이런 이유로 신학자들은 설교를 중심 자리에 두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계시인 그리스도, 말씀을 증언하는 도구인 성경, 그 성경을 우리가 받게 하는 증언이자 도구인 설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개신교회에서는 설교단이 예배당 중앙의 제단 자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프레임은 설교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심성'에는 의문을 품고 다섯 가지 이유를 듭니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설교를 가르침보다 앞세울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은 겹치고, 고린도전서 14:26은 설교가 아니라 가르침을 말합니다. ② 불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사도적 선포라는 의미의 설교가 예배를 지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가 예배의 일부였다는 성경의 증거도 없습니다. ③ 신앙고백서는 설교를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특별직분자에게 한정하는 듯합니다. 교회 가르침의 대부분을 안수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안수가 교회의 이름으로 설교할 권리, 곧 평신도에게 없는 특별한 권위를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침을 그들에게만 묶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자가 회중을 세울 말이라고 판단하면 평신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수받은 사람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④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도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만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⑤ 중심성은 늘 상대적입니다. 무엇이 중심이라고 하면 “무엇에 비해서?”, “그럼 무엇이 주변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때 설교는 성례를 밀어내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레임은 로마 가톨릭 미사에 대한 개신교의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미사를 뿌리부터 공격하고 설교로 대체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츠빙글리는 예배에서 음악까지 빼는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배의 어느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중심이라는 주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찬송·성례·기도보다 더 중심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혁자들은 성례를 가볍게 여긴 만큼은 실수했습니다.

1. 프레임: 설교는 중요하나 '중심성'엔 의문
2. 설교를 가르침보다 앞세울 근거가 없다
3. 사도식 선포가 예배를 지배할 이유가 없다
4. 안수자의 말만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니다
5. 중심은 상대적, 찬송·성례·기도도 대등

> 고린도전서 14:26

>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중심성은 항상 상대적이다.”

📜 8. 그래도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의 통로

중심이든 아니든, 설교와 가르침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효과 있는 수단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의 뜻을 제대로 전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할 때는 예수님과 바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성경 원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와 가르침은 본문 해석보다 예화와 적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프레임은 이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화와 적용이 훌륭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고 약속하는 것을 참되게 전한다면 그것도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화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설교·가르침은 효과 있는 말씀의 수단
2. 뜻을 바르게 전할 때 성경을 듣는 것
3. 바르게 전하면 예수님·바울만큼 확실
4. 예화·적용도 성경 내용이면 말씀 전달
5. 기준은 '성경을 참되게 전하는가'

> —
>
> 이 단락에서 저자는 새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앞 논지를 종합함

📖 용어

구두 전달
글이 아니라 입으로 말해서 전하는 방식입니다.

영감
하나님이 사람 저자를 움직이셔서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입니다.

불오와 무오
불오는 사람을 속이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뜻, 무오는 실제로 틀린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경과 충족성
정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교회가 받은 성경 66권의 목록이고, 충족성은 그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케리그마 / 디다케
신약 헬라어로 '선포(설교)'와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프레임은 앞의 것이 뒤의 것의 한 종류라고 봅니다.

특별직분 / 일반직분
특별직분은 은사와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세운 공적 직분(목사·장로)이고, 일반직분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함께 가진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화(덕을 세움)
이미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구속사적 강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큰 흐름 안에서 본문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자필본(저자 친필 원문)
성경 저자가 처음 기록한 원본입니다. 프레임은 사본·번역·설교가 바르게 전할 때 이

안수

교회가 기도하며 손을 얹어 직분자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프레임은 이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설교할 권위를 준다고 봅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사도 이후 영감된 선포는 없지만, 설교와 가르침은 성경이 명령한 대로 계속됩니다.
- 설교와 가르침은 겹치는 말이고, 신약이 예배 속 말씀 사역을 부르는 말은 '가르침'(고린도전서 14:26)입니다. 그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회중을 세우는가입니다.
-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성경을 참되게 전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설교는 예수님·바울만큼 확실하게 성경 원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설교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설교를 가르침·찬송·성례·기도보다 앞세우거나 안수자의 말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근거는 없습니다.
- 예화와 적용까지도 성경을 참되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됩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1편 ·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